

## 제47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89년 4월 10일 상오 10시 30분

2. 폐 의 : 단기 4289년 4월 10일 하오 5시 3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박찬규

5. 출석의원

재석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15명

결석의원

이복주, 김남진, 정응표, 임일남, 김길환, 문택호, 각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 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서기 박찬대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 1) 제46회 제2차 회의록 통과
- 2) 제46회 제3차 회의록 통과
- 3) 용당 도선장매점 진정관계 조사결과 보고
- 4) 격리병사 건축 방소국확장 및 상수도 시설 등 교섭결과 보고

### ◆ 부의사항

- 1) 목포시 공익전당포 조례중 개정조례 안
- 2) 제7회 시정감사 결과 전말보고
- 3)시유재산 감정위원 선출의 건

## 8. 토의사항

### ※제46회 제2차 회의록통과

간사 방재수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

(10시 35분 이복주 의원 참석)

### ※제46회 제3차 회의록 통과

간사 방재수 낭독에 이어 손백수 의원으로부터 동의원 발언중 「시내극장 료가 고가이오니 당국의 조절을 요망한다는 요지의 구절이 누락되었다는 발언」으로 즉시 삽입수정하고 그외 이의 없음으로 통과

### ※ 용당도선장매점 진정 관계 조사 결과보고

본 건 조사위원인 김창현 의원으로부터 그 당시의 관련된 제인사들을 역방하여 조사한 경위를 밝히고 공유수면에 매몰된 세멘콘크리도의 기초공사만은 종전과 건축 상위없으나, 현 도선장사무실인 3평은 분명히 진정한 강성봉의 개인 소유 재산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발언이 있자 진복춘 의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찬동 발언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박의장, 명남철, 이문길, 김자홍 제의원으로부터 왜정시 공유수면 임의로 점유할 수 없는 것인바 무슨 조건이라도 부수되었을 것이며 강성봉 개인소유라 인정할만한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의회에서 결정짓는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라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음

### ◇김 경 현 의원

- 본 건 개인소유권에 하등의 물적근거가 없으며 시효의 저촉을 받아 당연 소멸되는 것이니 본 진정서의 각하 할 것을 동의...재청

(11시 40분 김남진 의원 참석 17명)

◇김 삼 성 의원

- 이 문제에 대하여는 8.9할은 조사위원의 보고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왈가왈부 토론하는 것보다 행정부측에 이송처결토록 할 것을 개의

◇김 남 진 의원

- 김삼성 의원의 개의에 찬성하면서, 행정부 측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조사위원과 합의하여 행정부 측에서 적의 변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음. 개의 표결결과 재석 17명중 10표 가결

※격리병사 건축방송국확장 및 수도시설관계 진정결과 보고

◇이 재 흥 의원

첫째, 영산강 상수도 시설문제에 있어서는 당지 천주교회 현 주교의 적극적인 협력과 하 시장등의 열열한 노력으로 OEC측과 완전합의를 보게되어 시민이 1억 5천만원만 부담하게 되면, 임기 중에 기공하게 될 것을 확약 받았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고

둘째, 격리병사 신축문제에 대하여 방역국 예방과장을 만나 적극 진정하였던 바 본건 외에 항만검역소 관계 등에 대하여도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 경유 전달하여 달라는 약속을 받았으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셋째, 방송국확장문제 관계요로와 절충하였던 바 지방적으로 방송국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경주하는 우리일행을 극구 치하하면서 신년도 예산에는 고려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넷째, 해무청관리과도 심방하였드니 삼학도 공사문제에 대하여는 기공시때와 같은 성의 있는 시민의 협력을 요망한다는 격려를 받았고 그 길에 부흥부차 관도 방문하여 당 항의 외자 도입문제 등도 타합하여 근일 중 계속 입항하게 될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하 시장

- 이재흥 의원의 보고에 이어 보충하려합니다.

먼저, 이·오 양 의원의 노고 및 현 주교의 적극적인 협력에 대한 감사의 뜻

을 표하며 OEC측에 대하여 목포시민의 생명선인 상수도 해결에 외자의 원조로써 구세주가 되어 달라는 호소를 한끝에 정부당국의 불민불휴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교섭을 거듭하였던 바 지방사업에 대하여는 그 공사비의 반액을 지방민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나, 그 일부인 1억 5천만원이라도 년차계획으로하여 부담하는데 실수가 없겠느냐는 질문 및 근사 대구시의 동양공사에 대한 실책 등에 대한 의아등에 관하여 절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본 건에 대한 해결을 보게 된 것이나 우리시민이 삼학도 공사와 같은 전철을 안 밟아야 되겠으며 재원조성에 거시적으로 협조하여 목표완수에 총력량을 경주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임 즉시 나주군도 심방하여 본문제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김 경 희 의원

- 목포시민의 생명이요, 시발전의 관건인 해 상수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신 현 주교 및 조사위원과 하 시장 등의 노고를 심사하면서 오전 회의 휴회할 것을 동의. 재청...만장일치 가결.

- 오전 휴회선언

(12시 30분 현재)

(오후 1시 20분 정응표 의원 참석 18명)

(오후 1시 40분 임일남 의원 참석 19명)

- 오후 회의 속회선언

(오후 1시 40분 현재)

※목포시 공익전당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의

행정부측의 제안 이유 설명에 이어

◇이 부의장

- 본 건에 대하여는 시정감사 결과 보고시에도 상세히 말한바 있어 증언부언을 피하겠으나, 본 조례에 대한 제반사정을 기술적으로 고찰 감안하여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재청

표결결과 재석 19명중 가 12표 가결

※제7회 시정감사 처리결과 전말보고

본 건 거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하였던 시정감사 전반에 공한 심의 및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전말 보고를 다음순서로 하였음

1. 총무과 전반관계 : 총무과장 방재수
2. 각동 전반관계 : 시정계장 박찬대
3. 산업과 전반관계 : 농림계장 손일수
4. 사회과 전반관계 : 사회과장 윤주현
5. 재무과 전반관계 : 재무과장 이현두
6. 건설과 전반관계 : 건설과장 이춘흠
7. 호병과 전반관계 : 호병과장 정태로
8. 교육청 전반관계 : 학무과장 양찬묵

※질의응답 요지

◇김 영 완 의원

- 과반 의회 석상에서 예산 조치 전에는 유용한 사실이 전무하다고 응답하였던 교육감의 답변은, 농지보상금의 유용한 것 등의 예를 보더라도 교육자로서 여사한 허언을 하였으며 재산관리 조례를 안 만든 이유와 체납 처분비의 공평치 못한 징수등 교육감의 책임질수있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교육감 불참으로 연기)

◇진 복 춘 의원

- 행정부측 각 과장들 전달보고에 의하면 노력하여보겠다, 고려하겠다 등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으니 곤란한 문제이다. 하수도 준설공사 부진의이유 및 호병과 관인 압날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변두리 동의 자전거 구입대여, 연산강 상수도 시설 후에 죽교 5구동의 수도 시설책, 하계위생에 대한 대책 등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정 응 표 의원

- 회의진행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질문을 필한 이후 답변을 청취키로 하며

1. 목일보도사건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시정감사 결과보고 시행하기로 된 본 건 조사결과가 본 회의에서도 누락되어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 건에 대한 의아심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차후로는 제반공사 집행에 있어서 최저가격의 입찰제를 선택하여 주기 바라며 최저 가격의 입찰자를 피하고 예정 가격 접근자 측에 낙찰 시킨 이유를 묻는다.
2. 추계 도로보수 공사시 만호동 같은 동은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국가지책이기 때문에 이에 응하였다는 바 행정부측의 사전방안을 수립 안 한데서 기인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형무소 석산의 사석(死石)보다도 파석하는 기계를 서산동 근방에 설치하여 여사한 공사시 등 시민의 주름살을 풀리게 할 방안은 없는가
3. 현재 시청내의 과장간 및 직원간의 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후 가일층 친화단결을 기대한다.
4. 교육청문제로 의무교육 실시후 예산 편성시 학비면제를 하겠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친회비 때문에 퇴교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라 하니 유감스러운 일이다. 담당 교직원으로 하여금 가정방문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기 바란다.

◇김 자 흥 의원

- 요사이 사친회비 문제 등으로 교육자로서 감행할 수 없는 처사가 있는데 이사친회비 외에 자모회라는 것이 있어서 구정 및 신정 등에는 담당 교직원의 양복, 재봉침 등을 사준다하여 학부모형으로 하여금 각출케하여 자모회 수인의 체면을 세우는가하면 그 자제에게는 불공평한 성적표를 수여하고 있으

며, 사친회비의 납부가 지연되는 아동들의 책보, 모자 등을 탈취하고 교육자로서 할 수 없는 욕설을 순진한 아동들에게 한다고 하며, 수시 아동들로부터 용지대라 하여 징수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현상이다. 교육청측의 이에 대한 해명있기를 요망한다.

◇김 경 희 의원

- 재무과의 감사에 있어서 납세 의무자로부터 납부된 세금이 수납부에 미정리된 부분이 있으며 누락된 부분을 이제야 대조하고 있다하나 재무과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

◇김 창 현 의원

1. 각 국민학교의 신입아동들에게 입회비라 하여 거액의 무리한 징수를 한 바있으니 그 용도 여하
2. 도선장의 선표를 검수할 때에는 그 인쇄물의 검수 확인을 한 이후 교부토록 하여 이번 시정감사 당시 지적된 바와 같은 부족매수를 발견하는 것 같은 사례를 방지토록 요망한다.
3. 유류지급에 있어서는 도와 시로 직접 취급시킬 방도는 없는가, 중간에 업자를 두어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유류창고 설비의 축구를 요망한다.

◇명 남 철 의원

- 하양장의 한계를 밝혀주기 바라며 조회시간의 단축 및 주식(晝食)시간의 여행을 바란다. 그리고 시립병원 의사의 처우개선 및 죽교동 시장을 폐쇄하고 재건축택을 건축할 용의는 없는가 중동시장의 연고자로 하여금 항동시장에 입주케 하였던 대책을 밝혀주기 바라며, 가축시장의 개수 및 용당도선장의 삼호면측 잔교설치를 요망한다.

◇손 백 수 의원

- 시내 모 국민학교에서는 신입학생이 등교하는 날 입학금 100환 부족이라 하여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말은 들었다. 이런 처사는 학교를 기업체화 내지 상품화하여 민주교육창달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유감 된 일이다.

공익전당포 창고의 전기시설 및 시립병원의 기구완비와 치과설비를 요망하

며 관재계직원의 증원을 요망한다.

◇이 문 길 의원

- 죽교1구동 정병조씨 대지 배수구 공사의 착공의 시기를 알고 싶으며 가로등 증설의 용의는 없는가

◇김 삼 성 의원

- 도로보수에 있어 1기 보수시에 행정부측의 실수가 있었는데 2기 보수시에도 차에 대비를 못하고 되풀이하였다. 앞으로의 혁신안을 묻는다.

※ 행정부측의 답변 요지

◇총무과장

첫째, 공사 입찰관계에 있어 예정가격에 근사한 업자측에 낙찰시킨 이유로는 특수공사에 대하여 무모한 금액으로 낙찰을 모색하여 공사의 천연 혹은 조루한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기히 구성된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그 진상을 세밀히 조사하여 흑백을 깨끗이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청 간부간의 인하결여 문제를 지적 받아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가일층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철통같은 단결을 하여 관기를 확립시키고 인화도모에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중식시간의 여행은 철저히 단속하겠으며 조회시간의 단축문제는 일주일간의 사무집행에 대한 회고반성 및 각 과계의 시책에 대한 연락 등, 다소 느려진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넷째로 선표의 검수확인 및 변두리 동의 자전거 대여문제 등은 앞으로 유의 하겠으며 관재계 직원증원 문제는 현재 2인 배치가 틀림없습니다.

◇건설과장

- 죽교 1구동 정병조씨 소유 토지의 하수구 개수 공사에 있어서는 87년도 국고 보조금 80만원이 남아 있으나 정병조씨와의 재삼 교섭이 실패하여 좌절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상으로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가로등 증설문제는 시내에 400등이 필요한 바 현재 189등이 있는 것입니다. 89년도 예산에는 나머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죽교 5구동 수도시설문제는 현금 결정짓기 어려운 일이며 도로보수의 만호동 부담이 과중한 것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설용 「돌」 채취 기계설치 문제도 구상한 바 있으나 매년 1,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양장의 한계는 T표로 뚜렷이 되어 있습니다.

#### ◇사회과장

- 오물처리에 있어 경찰서와 가일층 긴밀한 연락을 하여 조치하겠으며 전염병 예방에 대한 소독실시 등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후 춘궁기 난민 구호대책에 대하여 목하 구호양곡의 지령을 받고 있으니 시급히 각 동으로 배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전당포 전등가설은 곧 하려합니다.

#### ◇재무과장

- 감사위원회에 그 즉시 요구서류 제시를 안한 점에 대하여는 심심사과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차후로는 절대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한 세금의 불입 미진분 및 장부와 장부간의 누락 문제 등은 현금 신중 조사중에 있으니 2~3일 내에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차후 책임을 짓고 명확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 ◇호병과장

- 민원서류의 관인 압날 문제는 직원을 증원하여서라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하 시장

- 20여일의 장기간에 공하여 시정쇄신을 도모하고 감사에 당해주신 여러 의원들에 자의를 표한다는 인사말씀에 이어

1. 가축시장 개수문제는 신년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2. 죽교동 시장은 구매력이 극히 저하된 원인으로 폐일로에 있으나 거액의 자금을 들여 개수에 착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상유지로 방치할 것인지 고려중에 있는 것입니다.
3. 시립병원 운영문제에 대하여는 현금 수지경리가 전혀 불부한데서 그 원인이 있는바 그 실례로는 입원실 30여개에 유료환자는 불과 2, 3인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유독 귀환 일선장병의 치료 등 약품의 무료제공이 심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현재의 예산면으로 보아 일시적 혁신책은 불가능 하나, 원장과도 상의하여 일반경제에서 할애하여서라도 점차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 유류창고 문제는 재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김 경 현 의원

- 10년 이상근속하고 있는 직원들에 승진시킬 방안은 없는가

◇하 시장

- 역시 동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인사권은 지사님에게 있는 것으로 수시상진하여 그 승진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유재산 감정위원 선출의 건

본 건에 대하여 하 시장으로부터 시의원인중에서 4명, 시간부 2명, 금융기관에서 2명 계8명을 선정하였으면 한 복안설명에 이어 이 부의장 김창현 의원, 정응표의원, 김경현 의원, 진복춘 의원 등으로부터 본 감정위원회의 성격 및 감정방법과 시유재산을 처분하는데는 시의회 전반적인 결의가 필요한 것이며, 감정위원회 단독 임의처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답이 있은 후

◇김 영 완 의원

- 시의회에서 6인, 시간부중 2명, 금융기관 2명 계 10명으로 정하되 지명은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

◇진 복 춘 의원

- 시의회 6명중 부의장 2명을 포함할 것을 첨가 동의 수락  
표결결과 채석 19명중 11표 가결

※ 감정의원

의회측 : 박찬규 의장, 이소규 부의장, 김장홍 의원,

오세일 의원, 김영완 의원, 정응표 의원

시측 : 총무과장, 산업과장

금융기관 : 한국은행, 목포 금융조합

계 10명을 지명

· 폐회선언

(하오 5시 30분)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89년 4월 13일

시의원 정 응 표

시의원 김 삼 성

작성자 주 도 식